‘투수 출신’ 한화 한용덕 감독, 새 공인구에 대해 입 열다

“반발력 차이 없고 공만 커져…투수한테 불리”

“실밥도 밋밋해 공 채는 데 어려움
타고투저 완화에 도움될지 의구심
대전서 0홈런…타구각·바람 영향”


한화 한용덕 감독

올 시즌 KBO리그에는 새로운 공인구가 등장했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타고투저’의 완화를 위해 반발력을 낮췄다. 0.4134~0.4374였던 기존 공인구의 반발계수를 일본프로야구와 동일한 0.4034~0.4234로 조정했다. 그 대신 공은 살짝 커졌다. 둘레가 234mm로 종전보다 1mm 늘었다. 새 공인구는 시범경기부터 사용되고 있다.

반발력 감소의 영향으로 플라이 타구의 비거리는 3m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현장에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현재로선 속단할 수 없다. 시기상조임에 분명하다. 다만 시범경기 개막전이 일제히 펼쳐진 12일 5개 구장에선 총 11개의 홈런이 터졌다.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한 결과다.

한화 이글스 한용덕 감독은 13일 두산 베어스전을 앞두고 스프링캠프부터 지금까지 관찰했던 새 공인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새 공인구가 타고투저를 완화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직은 느끼지 못하겠다”면서도 “반발력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 않고, 오히려 공이 커져서 투수들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 감독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새 공인구의 실밥이다. 새 공인구는 솔기도 넓어졌다. 한 감독은 “실밥이 밋밋해지면 투수들이 공을 채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나도 현역 시절 실밥이 손에 안 맞으면 자주 공을 바꿔달라고 했다. 투수들은 생각보다 예민하다”고 덧붙였다. 투수 출신답게 역시 세밀한 분석이 눈에 띈다.

한 감독은 전날 홈런성 타구 2개가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 외야 펜스에 맞고 2루타에 그친 장면에 대해선 새 공인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전에선 한 개의 홈런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4회말 한화 최재훈은 좌측 펜스, 5회말 한화 이성열은 우측 펜스를 때리는 큼지막한 타구를 날렸다. 한 감독은 “최재훈의 타구는 라인드라이브여서 펜스에 맞았다. 좀 높게 뜼으면 넘어갔을 것이다. 이성열의 타구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복기했다. 반발력이 떨어지는 새 공인구 때문에 홈런성 타구가 2루타로 둔갑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2017년(정규시즌 720경기 기준) 1547개였던 KBO리그 전체의 홈런수는 지난해 1756개로 대폭 증가했다. 2017년에도, 2018년에도 역대 단일시즌 최다홈런 기록이 세워졌다. 과연 올해는 어떤 결말이 나올까. 13일 시범경기 5게임에선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전날과 달리 총 5개의 홈런이 나오는데 그쳤다.

대전 |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NC 나성범

나 빠지는 NC 개막전 나빠지는 시즌 스타트

나성범, 내복사근 파열 3주 재활 진단

나성범(30·NC 다이노스)의 2019시즌 출발이 매끄럽지 않다. 내복사근 파열로 3주간 재활 진단을 받았다. 개막 엔트리 합류는 쉽지 않다. 선수와 팀 모두에게 타격이 큰 부상이다.

나성범은 12일 김해 상동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시범경기 개막전에 3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출장했지만 3회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뒤 교체됐다. 당시 NC 측은 “스윙 도중 왼 허리 근육이 약간 올라왔다. 선수 보호 차원 교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상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이동욱 NC 감독은 13일 상동 롯데전에 앞서 “큰일이다. 나성범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염려를 숨기지 않았다. 나성범은 이날 마산무릎병원에서 MRI 검진을 진행했고 내복사근 파열 진단을 받았다. 구단 관계자는 “재활에 3주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내복사근은 투수와 타자 가리지 않고 흔히 다치는 부위로 완쾌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해에도 민병헌, 고효준(이상 롯데), 양성우(한화 이글스) 등이 내복사근 파열로 신음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의 ‘주포’ 리버맨 아가메즈 역시 같은 부위를 다쳤다. 민병헌은 부상 직후 2~3주 재활 진단을 받았지만 복귀까지는 정확히 한 달이 걸렸다. 나성범의 완벽한 회복시간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나성범의 이탈로 NC의 시즌 초반 타순 운용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13일 롯데전에는 그간 리드오프로 나섰던 박민우가 3번타순을 맡았다. 모창민도 중심타선으로 손색이 없다. 하지만 나성범의 무게감을 온전히 채우기는 힘들다. 14일 1군에 합류하는 베테랑 박석민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선수 본인에게도 뼈아픈 부상이다. 나성범은 올 시즌 종료 후 포스팅시스템으로 해외 리그행 타진 자격을 얻는다. 미국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NC의 스프링캠프지를 찾아 나성범을 집중 관찰하기도 했다. 그들은 탄탄한 하드웨어를 갖춘 데다 공수주 두루 능한 나성범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여러 모로 중요한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상으로 시즌 초반 준비 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은 유쾌할 리 없다.

김해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13일 전국 5개 구장에선 2019 프로야구 시범경기 2일째 경기가 일제히 펼쳐졌다. 페넌트레이스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NC 다이노스 이우성(가운데)이 김해 상동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범경기에서 7회 1사 상황서 2루에 있다 후속타자 이상호의 적시타를 틈 타 홈으로 쇄도하고 있다. 롯데 포수 김사훈(오른쪽)이 필사적으로 태그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세이프였다. 김해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꽃샘추위에 ‘콜드 게임’ 된 낙동강 더비

〈NC vs 롯데〉

초속 9m 강풍에 체감온도 5.9도
7이닝 단축 합의…NC, 5-0 승리

‘콜드 게임(Called Game)’이 아닌 ‘콜드게임(Cold Game)’이었다. 13일 김해 상동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시범경기 2차전은 NC의 5-0 7회 콜드게임 승으로 마무리됐다. 콜드게임이 선언된 이유는 한파였다. 이날 김해시의 체감온도는 5.9℃였다. 양지에서는 못 견딜 추위가 아니었지만 문제는 강풍이었다. 초속 9m의 강풍이 경기 내내 몰아쳤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넥 워머를 껴입었고 제자리에서 총총 뛰며 몸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마운드의 로진 백이 날아다니며 경기가 중단되는 장면도 나왔다. 여러 노력에도 경기 강행이 쉽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부상 우려였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었던 전날(12일) 경기에서 나성범이 내복사근 파열 부상을 입었다. 전적으로 날씨 탓만 할 수는 없지만 몸을 달구기 쉽지 않은 환경이 부상 확률을 높이는 것만은 분명했다. 양 팀 감독도 이 점을 우려해 7이닝 경기에 합의한 것이다. 김용희 경기감독관은 “시범경기는 양 팀 감독 합의 하에 이닝 단축 등 콜드게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범경기는 늘 추위와의 싸움이었다. 지난해에도 3월 20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삼성 라이온즈전이 5회 한파 콜드게임 선언된 바 있다. 2010년 이후 12경기가 취소된 바 있다. 정규시즌에는 아직 한파로 인한 콜드게임, 연기 등은 없었다. KBO 규약에 한파 취소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강풍 취소 기준은 주의보(초속 14m), 경보(초속 21m) 등 상황이 명시돼 있다.

김해 | 최익래 기자

차고 넘치는 야수진…두산 ‘교통정리가 필요해’

최주환·박건우 전·후방 배치 저울질
시범경기서 새 클린업트리오 실험도
김태형 감독, 최적 조합 찾기 골머리


두산 김태형 감독

두산 베어스는 올해도 최강전력을 갖춘 팀으로 평가받는다. 비록 한국시리즈에선 준우승에 그쳤지만, 2위와 14.5게임차로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지난해의 압도적 전력이 여전해서다. NC 다이노스로 떠난 주전 포수 양의지의 공백을 메워줄 자원도 추가됐다. 새 외국인타자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 대형신인 김대한 등 야수전력이 제법 보강됐다. 투타에 걸쳐 최강으로 손색없는 전력이다.

그러나 한화 이글스와 맞붙은 시범경기 개막 2연전 내내 두산 김태형 감독은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양의지의 대안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다. 김 감독은 박세혁을 굳게 믿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차고 넘치는 ‘야수진의 교통정리’ 때문이다. 지난 시즌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김재환을 필두로 박건우, 오재일, 최주환에 새 외국인타자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까지 중심타선에 기용할 선수들만 해도 즐비하다.

김 감독은 13일 한화전에 앞서 “최주환과 박건우를 앞쪽으로 모느냐, 김재환 뒤쪽으로 돌리느냐가 고민이다. 시범경기 동안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환을 4번타자로 고정한 상태에서 중심타선에 들어갈 여러 후보들 중 최적의 조합을 찾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였다.

지난해까지 주로 3번으로 나섰던 우익수 박건우는 12일 6번으로 선발출장했다. 지명타자 최주환이 3번, 1루수 페르난데스가 5번을 맡았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부터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해온 오재일은 아예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다. 13일에는 김재환과 박건우가 빠지면서 2루수 최주환~1루수 오재일~우익수 김대한의 낯선 클린업트리오가 등장했다. 페르난데스는 2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장했다. 2번부터 6번까지 5명 중 4번 김재환을 빼고는 상당히 유동적인 타순조합이 눈에 띈다.

더욱이 오재일, 페르난데스, 최주환은 1루수라는 포지션에서 겹친다. 최주환이 2루수로 나서면 오재원도 그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들을 번갈아가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올 시즌 두산 타선의 파괴력을 좌지우지할 핵심 요소로 보인다.

대전 | 정재우 기자